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1월 4일(수) 제 3430호

道, 2027년 국가예산 증액 국회·정부 '발품'

국회 찾아 당 지도부·상임위 면담
피지컬AI·새만금 등 현안 반영 요청
기획처 간담서 정부 차원 협조 당부
특별법 개정·금융중심지 지정 건의



이원택 지사, 2027년 국가예산 증액 총력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3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2027년 국가예산 증액과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이원택 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증액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3일부터 이틀 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원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난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마련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소위 심사로 이어지는 증액 논의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심사 전에 당 지도부와 상임위, 예결위, 예산당국에 전북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지사는 3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400억 원) ▲중대형 상용차 전동화 전환 지원 기반 구축(13억 원) ▲우주방사선 영향평가 연구시설 핵심기술 고도화(10억 원)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 1-1단계(10억 원)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7억 5,000만 원)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5억 원) 등 10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의 간담회에서는 ▲AI가상융합 실증 공유 허브 구축(33억 원)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정부안 7억 2,000만 원·55억 5,000만 원 증액)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5억 5,000만 원) ▲새만금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5억 원)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등 15건을 건의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해식 행안위간사에게는 ▲전북특별법 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전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3억 원) ▲피지컬AI 기반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구축(3억 원)을 건의했다. 송수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에게는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정부안 175억 원·70억 원 증액) ▲전북 피지컬AI 밸리 조성(400억 원)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5억 원)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설(5억 원) 등 예결위 심사 대상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지성 행정부지사도 국회를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4일에는 장철민 산자위 간사에게 피지컬 AI 밸리 조성(400억 원)과 상용차 전동화 기반 구축(13억 원), 피지컬AI·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사업 5건의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는 이들 첨단산업 사업이 예산 심사에서 당의 중점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현대차그룹 투자 관련 입법과제 지원과 금융중심지 지정, 거점 문화시설 국비보조율 상향 등 제도 개선 과제도 건의할 예정이다.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과방위 소관인 AI가상융합 실증공유 허브 구축(33억 원)과 우주방사선 영향평가 연구시설 고도화(10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영재학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도 건의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면 증액 논의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 전북 사업을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상임위, 예결위는 물론 기획처까지 국회와 정부를 함께 설득해 한 건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형 공동영농체계 도입 모색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포럼 개최

농지·인력·농기계 공동 활용 체계
영농통합관리로 생산비 절감 효과
인력난 대응 지속가능 기반 마련

전북도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전북형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도입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가 주최하며,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단위 통합경영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형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개별 농가 중심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구성원이 농지와 인력, 농기계 등 농업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품목 선정부터 재배방식, 자재 구입, 농작업까지 영농 전반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경영체계다.

도는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업자원의 공동 활용과 영농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개별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도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애영농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포럼에서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형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도입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하고, 통합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실제 운영 사례와 성과,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전북의 농업 여건에 적합한 통합경영체계 구축 방안과 시·군 단위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전북형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개별 농가의 영농 지속이 어려워지는 만큼 마을단위 통합경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정청래 혁신당 합당 시한론에 '선 긋기'

"합당 당내 투쟁 수단처럼 제기돼
…전제·시기 정할 수 없는 사안"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청래 전 대표가 내년 1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딱 합당을 전제할 수도,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선의의 통합, 어떤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며 "정말로 1월에 통합하려고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청래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의 '정치수련회'에 출연해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제로, 다음 총선인 2028년부터 역산해서 혁신당 출신에게도 최소 6개월의 권리당원 모집 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경선"을 치르려면 "(합당의) 마지노선을 내년 1월로 보는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전 대표는 "김 대표 취임 100일에 어떤 깃발을 들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추락하자 김대표 불신임 후 당권에 재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 대표는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전) 시절의 합당론이 무산된 것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수렴하는 과정과 별도로 일방 선언식(발표)과 절차가 무시됐던 것 때문"이라면서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은 당원 주권적 결정이고, 당원들의 총의가 가장 응집해야 하는 결정"이라며 당원 의견 수렴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정 전 대표를 질타했다.

또 "지난 합당론 논란 시기 이후 최근에는 훨씬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분포가 많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다음 총선에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어떤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른 당내 스케줄을 연계시키듯이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분인 경우조차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한다"면서 정 전 대표의 통합입장을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전북도, 현대차 투자 연계 정주여건 개선 본격화

전북도·현대차·새만금청·군산시 협의체 출범…5대 분야 지원 논의
새만금사무소와 협력…현장 소통 계약학과·통근버스 등 지원책 검토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발맞춰 근로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도는 3일 새만금개발청 강당에서 현대차그룹,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새만금 정주여건 개선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5대 분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현대차그룹의 건의 사항과 근로자들의 정주 수요를 토대로 기관별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현대차그룹 새만금사무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끄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5대 분야별 도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건의 사항을 분야별로 검토하고,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조율을 거쳐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인근 지역의 기존 주택 활용과 주택 특별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협력기업 근로자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연계와 이주 지원방안도 살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연계한 정주기반 확충을 검토하고, 로봇주차·로봇배송 등 피지컬 AI 서비스를 정주공간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분야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병행한다. 전북대학교와는 계약학과 설치를 협의 중이며, 도교육청·지자체와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육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 투자와 연계한 산업인력 양성 기반을 다지고, 지역인재가 교육에서 취업, 정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의료 분야는 기존 의료기관과 협력해 소아·분만·응급 진료 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 건강검진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교통 분야는 통근버스 확대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을 우선 논의했고, 중장기적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문화 분야는 기존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이용 안내와 이주 가족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입주에 맞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도 검토했다. 제도 개선이나 재원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순이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자동차투자지원단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활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수요를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유하고, 주거부터 교육·의료·교통·문화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새만금에 3천억 규모 농업로봇 거점 조성 추진

박지원 의원·전북도·김제시 주관
새만금 로봇팜 팩토리 구축 간담회
농업로봇 제작·학습·실증 집적
현대차·대동 등 협력사업 연계 모색



<사진=의원실>

박지원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새만금 피지컬 AI 로봇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간담회' 를 주최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제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신승규 현대차그룹 부사장, 원유현 대동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태준 한양대 교수는 농업로봇 제작·학습·실제 영농 검증을 한 단지에서 연결하는 로봇팜 팩토리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김제 새만금 일원 21ha 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기획안으로 숙련 농업인의 작업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로봇이 일하기에 적합한 농장 구조와 작업기준을 마련하는 구상이다.

송호득 현대차그룹 상무는 농업로봇 공동 개발·제조와 부품 공급망 구축, 에너지 공급·농산물 유통 등 새만금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정주영 대동그룹 상무도 '로봇이 짓는 농업, 로봇팜 팩토리' 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숙련 농업인의 경험을 로봇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대동 등 농업 전문 기업의 역량을 연결하고 로봇·농업·유통 분야의 앵커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생산·판로 확보까지 협력해 실증을 실제 사업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등원 이후 새만금 로봇팜 팩토리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MP) 에 피지컬 AI 연계 첨단농업 구상을 반영하도록 협의한 결과 '피지컬 AI 연계 첨단농업 시험·연구 및 농기계 실증' 등 융복합 기반 조성 내용이 최종 반영됐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상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왔다.

박지원 의원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농업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로봇팜 팩토리를 시작으로 농업뿐 아니라 제조·물류·의료 등 분야별 사업을 확대해 전북이 피지컬 AI 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번 예산국회에서 로봇팜 팩토리 등 전북의 미래 성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뜻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3대 공적연금기관 업무협약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맞손
제도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제도 국제연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수강자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박재경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본부장, 문성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적연금 제도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교육자원 교류 ▲연금제도 운영, 가입자 관리, 기금 운용 등에 관한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간 인적 교류 ▲연수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 기관 제도연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연수자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더욱 내실있는 국제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수 대상국의 연금제도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해외 연금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34개국에서 1,303명의 연수생을 배출했으며, 연금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신흥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점검…13곳 적발

전북도가 배달 전문 음식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추진됐다. 배달 음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조리·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조리실 청결 불량 등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실 위생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도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 음식 소비 경향과 위생 취약 분야를 고려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 음식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단속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겨울철 고병원성 AI '철벽 방어' 집중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전주시가 야생조류를 통한 AI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순천만과 한강 인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전국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역 가금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위기경보 단계 상향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AI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 24시간 비상 체계로 전환했다.

또, 순천만 검출 지점 등 철새도래지 인근의 축산 차량 및 관계자 출입 통제 및 일제 소독을 지시한 바 있다.

전주시 역시, 최근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러스의 농가 전파 위험이 커진 만큼, 만경강과 전주천 등 철새도래지 일대를 매일 시 방역차량을 투입해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의 축산 차량 진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홍보하는 한편, 축산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특히 전주지역 6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는 축산방역 전담 공무원이 매주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AI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병원성 AI 청정 전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과 같은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철저한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도시 구현

현수막·벽보·전단 수거시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다. 단,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과 사업 내용(벽보·전단지 수거)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올해 보상제 사업량을 축소·조정했다.

현수막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청 현장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골목길 등 정비취약지역을 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정비 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가로수 1593그루 정비 추진

총 4억900만원 투입 안전·경관·생육 함께 고려

전주시가 가로수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한 생육과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한 가지치기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총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투입해 전주천동로 등 12개 노선의 가로수 1593그루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가로수 가지치기는 건축물과 가지의 접촉, 낙엽으로 인한 지붕 배수구 막힘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강풍에 따른 가지 부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이 과정에서 수목별 생육 상태와 주변 시설물, 경관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범 작업을 통해 구간별 작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현장간담회에서 논의한 가지치기 범위와 방법을 실제 작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시범 작업 과정에서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지치기 후 나무의 모양과 높이, 수관폭, 솎아 낼 가지의 범위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후 시범 작업 결과를 반영해 개별 수목의 생육 상태와 건축물·전선 등 주변 여건에 맞게 작업 범위를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특히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가지를 중심으로 정비하되,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작업 직후뿐 아니라 새 가지와 잎이 자란 이후의 수형까지 고려하고, 작업 후에도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균형 있는 수형이 형성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268개 노선에 식재된 가로수 6만3000여 그루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우선정비 대상을 선정해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호등과 안내표지판을 가리거나 전선·가로등 등 시설물에 접촉하는 가지는 통행과 시야 확보, 시설물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가로수가 제공하는 그늘과 녹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이번 가지치기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로수의 건강과 녹지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 작업으로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이후 생육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펴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녹지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국가결핵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3일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가족접촉자 조사 부문 전국 1위



전주시보건소는 3일 '2026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보건소>

전주시보건소가 국가결핵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결핵 확산 방지와 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시보건소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6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협력 의료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결핵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결핵환자 관리, 가족접촉자 조사 등 총 4개 부문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주시보건소는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의 조기 검진과 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결과 △가족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및 치료완료율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족접촉자 조사 부문'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전주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최우수기관, 2021년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최우수기관, 2023년 결핵환자 역학조사 우수기관에 이어 다시 한번 결핵관리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하게 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결핵 퇴치를 위한 보건소 직원들과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결핵관리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연말 체납차량 번호판 대대적 영치 추진

전주시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청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세무담당자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돼 체납차량 단속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특히 이달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으로 지정해 부서별 책임 구역과 단속 일정을 정하고, 집중적인 합동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후에도 상시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집중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가을 전주, 책과 문화로 물들다

도서관·평생학습 프로그램 풍성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전주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서와 문화예술,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별·기관별로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최근 아름다운 호수 경관과 특색 있는 독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중호수도서관에서는 오는 9일 '서울야외도서관 힙독클럽' 회원 70여 명이 방문해 '전주 노마드리딩'을 경험한다.

'책의 도시 전주에서의 독서 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독서 명소를 찾아 책을 읽는 이색 독서 여행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아중호수도서관에서 몰입독서를 통해 특별한 독서 경험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총 3회에 걸쳐 클래식 기타와 현악 연주를 선보이는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도서관 동네예술가' 공연이 진행된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11일과 17일, 12월 8일 등 총 3회에 걸쳐 지역 청년과 연계한 △몸과 마음을 읽는 책요가 △책 옆 커피 낭독회 △진(Zine) 워크숍 등 독서와 문화·창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송천도서관은 오는 28일 시민 참여형 북플리마켓 '지구책장'의 올해 마지막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책장'은 시민들이 책과 중고물품을 나누고 교환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는 행사로, 이번 행사를 끝으로 올해 총 6회 운영이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별 특성을 살린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장애인 특화도서관인 평화도서관은 오는 5일 전주북초등학교 2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수어교실'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인문학적 관심은 평생학습관의 강좌를 통해 심화과정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오는 19일 덕진예술회관에서는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AI 시대,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하는 '제223회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개최된다.

인문학 강좌도 연말까지 계속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유쾌한 인문학 시즌5'가 운영되고, 오는 12월 4일에는 우석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융합콘서트'가 진행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실태 점검

관내 산지유통센터 2개소 대상 실태 점검·현장 애로사항 청취

전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곳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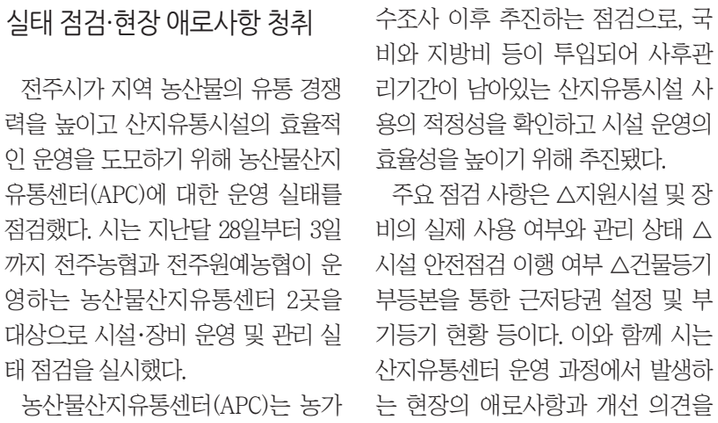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하는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농산물의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유통 효율성을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개소 전체의 운영현황 전수조사 이후 추진하는 점검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이 투입되어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산지유통시설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원시설 및 장비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리 상태 △시설 안전점검 이행 여부 △건물등기 부등본을 통한 근저당권 설정 및 부기등기 현황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지유통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소통도 병행했다.

시는 이번 점검 내용을 토대로 시설·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산지유통시설 운영 개선과 관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여의동 '사랑의 밥차' 달렸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여의동주민센터는 3일 동산교회에서 지역사회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건강 돌봄 서비스, 문화 공연을 제공하는 'IBK 사랑의 밥차'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에는 여의동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연합, 행복한 밥상 푸드봉사단이 참여해 설거지 및 배식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떡과 과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전북문화예술인협회 △생활체조 △고고장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MC위너스협회의 사회로 흥겨운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나눔서금요법봉사회 △귀반사건강봉사단 △엄지건강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노인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전북 10월 소비자물가 2.9% 상승

2020년보다 물가 수준 21.1% 높아 서민 체감 부담 우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둔화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21%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식비와 생필품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0.1% 올랐다.

전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3.5%에서 6월 3.6%로 높아진 뒤 7월 3.3%로 낮아졌다. 이후 8월에는 3.7%까지 상승했으나 9월 3.2%, 10월 2.9%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10월 상승률은 지난 3월 2.4% 이후 7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이다. 물가 상승 속도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여전히 높다.

전북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117.64에서 올해 10월 121.09로 상승했다. 지난 2023년 10월 113.33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약 6.8% 오른 수준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10월 소비자물가는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분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 1월 118.49였던 지수는 3월 119.37, 5월 120.50, 8월 120.51, 9월 121.01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121.09까지 높아졌다.

특히 7월에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8월 0.2%, 9월 0.4%, 10월 0.1%씩 상승하며 최근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가격 변동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물가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구일수록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의 체감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다.

/최준호 기자

부안군,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지원

인력 부족 대응 생산성·경쟁력 강화 도모

부안군은 축산업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우 스마트번식관리 시스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원(군비 60%, 자부담 40%)의 재원을 투입해, 관내 200두 이상 사육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ICT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접목한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우 스마트번식관리 시스템은 축사에 설치된 스마트 CCTV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한우의 번식 상태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를 농장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 모니터링을 통한 수태율 향상 △동물복지형 축산 실현 △노동력 대폭 절감 등이다.

상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농가의 노동력과 육체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소의 발정 징후를 정확히 포착해 적기 인공수정을 유도함으로써 수태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축 상태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현장 농가들 사이에서는 초기 장비 조작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사용에 다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완 요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피드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손 부족과 번식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된 보완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에 'JB희망의 공부방' 2개소 오픈

학습환경 개선 쾌적한 돌봄 공간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부안군 소재 부안지역아동센터와 백산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43호·제244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들에게 쾌적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 40명이 이용하는 부안지역아동센터에는 바닥 교체와 함께 테이블, 수납장,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소독기 등을 지원했다.

백산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에는 노후 책상과 의자, 책장을 교체하고 컴퓨터와 복합기, 화이트보드 등을 설치해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환경을 개선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전북은행 최종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부행장은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은 부안군 소재 부안지역아동센터와 백산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43호·제244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전북은행>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내장산IC~정읍IC 부분 통제

4~5일까지 본선교 통행 전환 조치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병천)는 4일 오전 7시부터 5일 오전 3시까지,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 정읍IC(천안방향) 구간 본선 2개 차로를 1개 차로씩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노후 교량(용산천교) 전면개축공사 개통에 따라 기존 임시도로로 운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본선교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분 통제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경우, 내장산IC에서 진출한 뒤 국도 1호선을 이용해 정읍IC에서 고속도로로 재진입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우회도로와 교통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은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용산천교 본선교로 통행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로를 통제하게 됐다"며, "출발 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작업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통제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의,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3일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사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긍정사례와 개선사항, 참여 청년의 실제 채용까지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김정태 회장은 "최근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변화에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는 매우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산업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저탄소 고창한우축제' 열린다

6~7일 석정웰파크호텔서

고창군이 오는 6~7일(이틀간) 석정웰파크호텔에서 '저탄소 고창한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저탄소 고창한우 과학으로 맛보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창 저탄소 한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한우'는 사육 과정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우수 개량, 출하 개월 수 단축, 저탄소 사료 급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최첨단 축산 기술을 적용해 동급 평균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10% 이상 대폭 줄여 생산한 친환경 한우다.

행사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생산한 고창 저탄소 한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농가 관계자가 참여해 저탄소 한우 생산 기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도 마련된다.

또한 과학 유튜버 '항성'이 진행하는 과학콘서트에서는 저탄소와 기후위기 이야기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으며, 가수 김뭉땅과 알리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현재 고창군에는 도내 최초이자 전국 최다 수준인 13개 한우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아 고창 한우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있다. 군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유전체 분석 사업과 저탄소 사양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저탄소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맛있는 한우를 즐기며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국산 국화 보급률 34.4%로 확대

농진청, 신품종 평가회 개최

국산 국화 보급률이 15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진 가운데 병해에 강하고 농가 생산비까지 줄일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약 사용량과 방제 노동력,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되면서 국산 국화의 재배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화 육종 온실에서 '국산 국화 신품종·육성 계통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국산 국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신품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상품성과 재배 특성이 우수한 스프레이형 국화 유망 계통 10여 종과 국내 육성 우수 품종 5종을 선보인다.

국화 재배 농가와 종묘업체, 화훼 경매사, 소비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꽃 색과 모양, 균형, 균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장 선호도와 재배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주요 유망 계통 가운데 '원교B1-220'은 독특한 주황색 꽃과 풍성한 겹꽃이 특징으로, 국화의 주요 병해인 흰녹병에 강한 특성을 지녔다.

'원교B1-217'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분홍색 꽃에 생육이 빠르며, '원교B1-218'은 연한 분홍색 꽃으로 개화가 빨라 조기 수확에 유리하다. '원교B1-221'은 작은 흰색 꽃이 풍성하게 피고 개화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국내 육성 우수 품종인 '백강', '프레시쿨', '연담' 등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백강'은 국내 최초의 흰녹병 저항성 흰색 대형 국화로 주목받고 있다.

백강은 병해에 강해 농약 사용량과 방제 노동력을 약 30% 줄일 수 있으며, 기존 품종보다 낮은 온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어 난방비도 약 2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쿨'은 연녹색 꽃잎이 특징으로 흰녹병에 강하고 여름철 고온에서도 선명한 꽃 색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개발된 '연담'은 흰색 꽃잎과 녹색 중심부가 조화를 이루는 아네모네형 국화로, 독특한 꽃 모양과 흰녹병 저항성을 갖췄다.

국산 국화의 품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보급률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5.0%에 불과했던 국산 국화 보급률은 2025년 34.4%로 19.4%포인트 상승했다. 15년 사이 약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산 품종 보급률이 여전히 4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재배 안정성과 시장성을 갖춘 품종 개발, 종묘 공급 확대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꼽힌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은하 화훼기초기반과장은 "이번 평가회는 국산 국화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국화 품종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 별세

서민금융 활성화에 헌신

문철상 前 신협중앙회장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故人)은 군산대건신협에서 신협 활동을 시작해 전무와 이사장을 거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장,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31대 신협중앙회장을 지냈다.

고(故) 문철상(세례명 클레멘스) 전 회장은 30년 넘게 일선 조합과 중앙회를 두루 거치며 서민금융 활성화와 한국신협의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중앙회장 재임 당시 '신협운동의 르네상스'를 강조하며 신협의 정체성 회복과 조합 중심의 경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힘썼다.

2015년 신협사회공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 금융소외계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회장에 선출돼 아시아 지역 신협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신협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기여했다.

고인은 생전 신협이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따뜻한 이웃이자 중산층의 든든한 금융동반자로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협동조합 금융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빈소는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2층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월 4일 9시 30분, 장지는 군산승화원이다. 장례는 신협장(信協葬)으로 거행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 5개 시군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전북형 교육 생태계 조성 박차… 연 최대 20억·최장 5년 지원

전북 5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결과, 도내 14개 시군 중 김제·무주·부안·순창(1유형)과 완주(2유형) 등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총 43곳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당초 목표로 내건 5개 지역 모두 낙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지역에는 연간 최대 20억 원의 재정이 최장 5년간 지원되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유형별로 보면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선정된 김제·무주·부안·순창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고,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맞춤형 모델을 운영한다.

2유형에 선정된 완주는 면 지역 학교군을 중심으로 한 공동·이음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 기회를 읍 지역 수준으로 보장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원팀'을 이루어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천호성 교육감은 "14개 시군이 모두 도전해 5개 지역이 선정된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선정 지역이 '아이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전북형 교육혁신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 박상준, 생애 두 번째 소백장사

문경 이어 의성서도 정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이 의성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소백급 1·2위를 모두 차지했다.

지난 2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의성마늘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박상준이 같은 팀 동료 황찬섭을 3대2로 꺾었다. 지난해 12월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첫 소백장사에 오른 데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이다.

박상준은 8강에서 이대성, 4강에서 홍용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친 황찬섭도 2위를 기록했다.

씨름단은 최근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박희연 감독은 "박상준 선수가 다시 소백장사에 올라 매우 감격스럽다"며 "훈련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교육청, '보편적 학습설계' 통합교육 연수 운영

에누마 이수인 대표 초청 통합교육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3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특수·통합학급 담당 교사와 일반학교 관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학습설계로 실현하는 통합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다양한 학습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수업 설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교원의 통합교육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편적 학습설계(UDL)는 학생이 정해진 수업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해 학습 목표와 참여·표현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교육적 접근이다.

이날 특강에는 세계적인 교육기술 기업 에누마의 창업자이자 토도수학·토도한글 개발을 이끈 이수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모든 학생을 위한 배움'을 주제로 보편적 학습설계의 철학과 교육 콘텐츠 설계 경험을 공유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가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업 설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JBNU 전공탐색 박람회' 개최

계열별 75개 학과 참여 졸업생 멘토링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2026-2학기 JBNU 전공탐색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공 선택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른 계열별 모집 75개 학과(부)가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학과 생활과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전공 상담을 넘어 졸업생과 현직자 멘토링이 함께 진행된다.

졸업생 멘토들은 취업 및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현직자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전공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소통의 기회를 넓힌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직무 탐색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조동휴 학생취업진로처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지원체계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6 문화예술본부 라운드테이블 '우리의 현장, 모두의 예술'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창작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두 분야로 이틀에 걸쳐 진행하며, 분야별 전문가그룹인 퍼실리테이터 15명과 예술인·단체 관련자 등 160명이 총 15개 그룹에서 현장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조를 살피고, 지역 기반의 교육 인력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첫날인 3일 창작지원 분야 토론에는 9개 그룹으로 장르별 창작 특성에 따라 진입(초기)부터 성장, 확산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4일 문화예술교육 분야 토론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그룹인 퍼실리테이터 6명과 사전 신청한 60여 명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가 모여 6개 그룹으로 나눠 교육 인력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재단은 현장 기획자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평가 체계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참여 유인책, 청년 기획자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 또는 교육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7일 특별한 타악공연 선봬

국악·라틴·아프리카 리듬의 만남 '퍼커셔니즘' 개최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7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국 전통 장단과 라틴, 아프리카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타악공연 '퍼커셔니즘'을 개최한다.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사업에 선정돼 국비 90%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이번 공연은, 평소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무대를 군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의 흥겨운 장단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리듬과 라틴음악의 열정적인 선율을 결합해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의 리듬이 하나의 음악적 흐름으로 엮이며 만들어내는 조화와 에너지를 통해, 타악기만이 구현할 수 있는 풍성한 울림과 음악이 지닌 소통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다.

관객들은 익숙한 우리 전통 장단이 세계 각국의 리듬과 만나 새롭게 재해석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타악기가 선사하는 흥겨움과 색다른 음악적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국악과 라틴, 아프리카 음악이 '리듬'이라는 공통 언어로 하나 되는 환상적인 무대"라며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리듬과 타악기의 매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의 피로를 털어내고 특별한 음악적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술은 멀리, 건강은 가까이’ 익산시 걷기 챌린지

익산시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2일간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걷기 챌린지 ‘술은 멀리, 건강은 가까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챌린지 기간 누적 10만 보를 달성하면 된다.

하루 최대 8,000보까지 인정되며, 목표 달성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익산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해당 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건강증진실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가 음주폐해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이·통장들 한자리에 교류·체육활동으로 화합 다져

정읍시가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민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교류행사와 체육대회를 열었다.

3일 열린 ‘이통장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과 사회단체장, 이·통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류와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이·통장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천 정읍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이번 행사가 이·통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통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애란 작가, 익산 시민과 만난다… ‘인생문답’ 강연

익산시가 소설가 김애란 작가를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영등도서관에서 오는 19일 오후 7시 김애란 작가와 함께하는 ‘인생문답’ 강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인생문답’은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영등도서관의 대표 인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은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강연에서 김애란 작가는 ‘소설의 음계, 삶의 사계’를 주제로 자신의 작품에 담긴 계절과 음악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 삶에서 노래와 이야기가 하는 일, 소설이 지닌 역할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애란 작가는 2002년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등단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두근두근 내 인생 △바깥은 여름 △안녕이라 그랬어 등이 있다. 이상문학상 대상과 동인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안녕이라 그랬어’로 제41회 만해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 신청은 4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영등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통계 조사 유공 표창

통계조사 3개 안전사고 0건… 정확성·신뢰도 입증

정읍시가 대규모 통계조사 3개를 안전사고 없이 수행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 공로로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4~2026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자체에 수여된다.

정읍시는 지난해 10~12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올해 6~7월 경제총조사를 수행했다.

시는 조사 계획 수립부터 현장 실사 지도까지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현장 관리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현장 조사를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3개 대규모 통계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0건’을 달성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성실히 조사에 응해준 시민들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힘써준 조사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데이터)를 생산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국가데이터처의 공표 일정에 따라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읍시 누리집 ‘정읍통계’에도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새만금개발公, 상생발전 ‘맞손’

산업·관광·인적자원 연계 협력체계 구축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새만금개발공사와 손잡고 산업·관광·인적자원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 나선다.

익산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정호 익산시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새만금개발공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익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익산의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유치 협력 및 협력사업 발굴 △관광·교통자원을 연계한 교류 활성화와 공동 홍보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연계·지원 △그 밖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익산의 기존 산업기반과 새만금의 투자유치 기능을 연결해 기업유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관광·교통자원을 활용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의 산업기반과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을 연결해 공동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유치와 관광교류, 지역인재 채용 등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늦가을 내장산에서 즐기는 힐링”

21~22일까지 웰니스 페스타 개최

정읍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내장산 관광특구 일원에서 걷기와 달리기, 요가, 생태탐방 등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즐기는 ‘2026 정읍 웰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 단풍 명소인 내장산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형 관광행사다. 정읍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늦가을의 매력을 느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장산의 가을밤을 경험하는 1박 2일 배낭 도보 여행(백패킹)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모집이 조기 마감됐다. 행사 기간 메이플랜드 잔디광장에는 약 300동의 텐트가 들어서 늦가을 단풍처럼 광장을 붉게 물들이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배낭 도보 여행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숲속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숲 요가와 자연을 달리는 ‘치유러닝’, 월영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는 생태탐방 등을 운영한다.

주 행사장인 메이플랜드 잔디광장에서는 거리공연(버스킹)과 ‘지역먹거리 판매장터(로컬마켓)’도 열린다. 체험 참가자뿐 아니라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공연과 장터를 즐기며 가을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현재 배낭 도보 여행을 제외한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행사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가 추진하는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관광상품 ‘정읍 애기단풍 에코스테이’도 운영된다. 최근 조성된 정읍 치유의 숲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정읍에 머물며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정읍시>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는 내장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직접 걷고, 달리고, 쉬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라며 “늦가을 내장산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주요 관광지 및 상습 위반구역 중심 단속

군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3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은파호수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주·정차 위반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주차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대야전통시장 ‘큰들야시장’ 개최

6~7일 즐길거리 ‘풍성’

군산시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대야전통시장 신설주차장 일원에서 ‘제2회 큰들야시장’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야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열린 큰들야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야시장은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야시장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월 1일과 6일 열리는 대야전통시장 오일장과 연계돼, 장날인 6일 낮에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전통 오일장의 활기찬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행사 기간 현장에는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판매부스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취식 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노래 실력과 끼를 뽐내는 ‘대야큰들가요제’를 비롯해 트로트, 댄스, 7080, 색소폰,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이벤트와 경품 추첨은 행사의 흥겨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5년 개설된 대야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군산의 대표적인 오일장으로, 장날마다 다양한 농수산물과 생활용품을 찾는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이다. 시는 이번 야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이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가동

가을철 산불 예방 최선

정읍시가 산불 감시·진화 인력 115명을 투입하고 대책본부 23곳을 가동해 가을철 산불 예방에 나선다.

산림녹지과와 22개 읍면동에 설치한 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산불감시원 74명과 산림재난대응단 41명이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활동을 맡는다.

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산불진화차량 4대, 개인진화장비 등을 미리 점검·정비했다.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문교육도 진행해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인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농작업 뒤 남은 줄기 등을 잘게 부수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도 추진한다. 산림재난대응단이 파쇄 작업을 맡아 농가의 부산물 처리를 돕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마른 깻대와 고춧대, 옥수수대 등 지름 5~6cm 이하의 영농부산물이다. 나뭇잎과 풀, 볏짚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신규 입점자 모집

4일~6일 접수

군산시는 지역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산물종합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점포는 총 7곳으로 △건어동 건어류 1점포(17.06㎡) △본관동 1층 활어류 2점포(각 8.58㎡) 및 선어류 1점포(8.58㎡) △본관동 2층 수산물식당(상차림·횟집·퓨전식당 등) 3점포(59.4㎡ 2곳, 65.41㎡ 1곳)다.

선정된 입점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0월 28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으로, 접수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점 신청은 1가구 1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중 기존 센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하고 허가자 본인이 직접 상주해 영업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이며, 입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수산물특화단지 1층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가린 뒤,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입점자와 점포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익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익산시는 하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을 시작하고, 대기오염 우려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운영해 왔다.

이번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생활 주변의 주요 오염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감시단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실태 등을 살피며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제인 익산시 환경관리과장은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예방 중심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으며 국회 예산심사 단계 총력 대응에 나섰다.

먼저, 예결위 박지원 의원을 만나 '차세대 전력기술 시험·실증 플랫폼 구축사업(3,500억원)', '아산 상갑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26억원)' 등 3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인 '차세대 전력기술 시험·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 유일의 고창전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시험, 실증까지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심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 전력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중점사업의 국회 증액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를 찾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29일 이현서 부시장의 국회 방문에 이어 정성주 시장까지 직접 국비 확보전에 나서면서, 국가예산 확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 시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예결위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회단계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및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미래농업 전환 및 농업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로봇 팜 팩토리 구축 등 모두 지역 성장의 전환점이 될 핵심사업들이다.

정 시장은 "국회 심사가 이어지는 연말까지 중앙부처,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건의활동을 펼쳐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3일 국회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와 지역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상윤 부군수는 안호영·박지원·이기헌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부안군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한병도·이광재·서삼석·윤준병 의원실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안군 선정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등 5개 사업이다.

방상윤 부군수는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종합



<사진=고창신협>

고창신협, 고창읍에 나눔 실천

성금 100만원·이불 전달

고창신협(이사장 손영찬)이 지난 2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읍장 박병섭)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과 이불15채를 전달했다.

고창신협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함께 전달된 이불은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찬 이사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창신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섭 고창읍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고창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7일 시민운동장서 새만금 희망 콘서트 개최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는 '2026 새만금 희망 콘서트'가 오는 7일 오후 5시 김제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온 김제시민들의 노력을 되새기고, 새만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와 미래 중심도시 도약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음악과 영상, 특별한 퍼포먼스로 담아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YB(윤도현밴드)를 비롯해 락킷걸, 제35보병사단 군악대(삼삼오오밴드), 퓨전 국악밴드 달디달아 등이 출연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콘서트는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새만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김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김치원료 공급단지' 본격화

생산·저장·가공·유통 종합 유통플랫폼 구축

고창군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의 밑그림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2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와 관계 부서장, 군의원, 김치산업 관련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일원 5만 274㎡ 부지에 절임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염수재활용시설 등을 조성해 김치원료의 생산·가공·저장·유통을 연계하는 종합 유통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0억원이다. 특히 이번 설계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국내최고 김치원료 공급단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절임배추·세척무 생산시설은 원료 입고부터 전처리·절임·포장·출하까지 작업 흐름을 고려해 공정라인을 단순화했다. 세척무 생산라인도 반영되면서 실제 생산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온저장시설은 단기·장기 저장 특성을 고려하고, 화물차량과 지게차의 동선을 구분하는 등 원료 품질과 작업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또 향후 사업부지 내 시설 확충을 고려해 증축부지를 확보하고, 추가 예산 확보시 165.2㎡(50평) 저온저장고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확장계획도 반영했다.

고창군은 최종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공사 발주와 착공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공급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단순한 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김치원료를 안정적으로 저장·가공·유통해 지역 농업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사업이다"며, "실제 농가와 김치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가을철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상시 감시체계 강화

부안군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일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산불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 산림정원과와 부안군산림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양 기관 직원 30명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출근길 및 통행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과 산불 예방 리플릿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산불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취약지 순찰 및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5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6일 열려… 보전 중요성 공유

고창군이 오는 6~8일(2박3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선운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제5회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는 국내·외 탐조인들이 팀을 이뤄 철새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탐조대회다.

앞서 제4회 대회에서는 총 156종의 조류에 대한 1,793건의 탐조 기록이 수집됐으며, 붉은왜가리, 흰눈썹붉은발도요, 노랑허리솔새, 쇠찌르레기, 흰허리큰뒷부리도요 등 고창군 미기록종 9종이 관찰됐다.

올해 대회에는 총 30개 팀 11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김성현 박사가 '고창갯벌 하늘길에서 만나는 맹금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참가팀별 탐조 활동이 종일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5주년 기념식과 대회 시상식이 열린다.

특히 올해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해 기획 전시와 홍보 부스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 7월 '한국의 갯벌'2단계 확대 등재로 세계유산의 가치와 범위가 확장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를 되새기고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변산다목적체육센터 준공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안군은 3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산다목적체육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지상 1층 연면적 979.07㎡ 규모로 건립됐으며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을 비롯해 소방·냉난방·방송설비 등을 갖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센터 준공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센터는 앞으로 주민 생활체육 활동과 동호회 모임, 주민 화합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부안읍을 비롯해 줄포·행안·백산·보안·하서에 이어 일곱 번째로 문을 연 센터로 지역 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센터 준공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2026 김제청년축제' 성황리 마무리

김제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제실내체육관 앞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6 김제청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펼쳐라! 청년의 판(P.A.N)'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청년의 열정(Passion)과 도전(Action)이 미래(Next)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특히 청년축제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하고, 청년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펼쳐졌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가을날 피크닉'을 주제로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잔디광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마술과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소원주 빚기, 싱잉볼 체험, 클래식·재즈 공연과 버스킹 등이 펼쳐져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선사했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청춘 타임머신 운동회'가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복불복 레이스를 비롯해 미니게임, 장애물 달리기, 협동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함께 뛰고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어진 청춘 라이브 공연은 축제의 마지막을 흥겹게 장식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마련한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주도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의회 의회사무과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동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부안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일이 부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장학사업에도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을 모아 부안 학생들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가 부안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범군민 후원 운동이다.

김명순 의회사무과장은 "한 사람의 참여가 모이면 부안 학생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고, 지역의 미래에는 더 큰 희망이 된다"며 "의회사무과의 따뜻한 동참이 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이어져 부안의 인재를 함께 키우는 나눔의 물결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일자리 정책 방향 점검

지역 맞춤형 전략 구체화

김제시는 3일 민선 9기(2027~2030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민선9기 김제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부서와 시의회, 일자리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일자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김제시의 인구·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기업 및 인력수급 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추진전략을 검토했다. 아울러 부서별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의 연계·통합 운영, 김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과 새만금 산업 연계 미래 일자리 발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전과 핵심전략, 세부사업 간 연계성을 보완하고, 지역의 고용 여건과 시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까지 민선 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의 산업·고용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고구마 가공산업 성과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구마를 활용한 관내기업의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2024~2025년)' 통해 해들녘 영농조합법인(서재필 대표)이 콜라겐 고구마 젤리·고구마강정을 시판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 자원과 연고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원은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를 중심으로 제품개발, 판로확대, 기업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해늘녘의 콜라겐 고구마 젤리는 고구마 본연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콜라겐을 더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은 성장하고 농가는 웃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일자리 연결·재도약 지원 강화 2(題)

완주군, 150여 기업 참여 일자리박람회 개최

완주군이 오는 10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내외 150여 개 우수 기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취업 한마당인 '2026 완주군 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비롯해 15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구인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열어주고, 구직자에게는 현장 취업 기회와 함께 폭넓은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장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취업 토크콘서트, 일대일 현장 채용 면접관, 입사 상담관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완주군시설관리공단, LS엠트론㈜, ㈜오디텍, ㈜서진산업 등 4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와 기업 인사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생생한 정보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채운다.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지도와 면접 상담, 직업 적성 탐색 등 구직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청년 현직자가 생생한 현업 노하우를 전하는 '직무 상담관(멘토링관)'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취업·비자·지역 정착 상담 부스도 별도로 마련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주민들의 구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 활성화 정책을 힘 있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CJ남원공장 퇴직자 재취업 지원

남원시는 CJ 남원공장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퇴직(예정) 근로자 상생 재도약을 응원하는 재취업 설명회를 3일 남원시 고용플러스센터 2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시, 남원고용플러스센터, CJ남원공장, 전문 전직 컨설팅 기관 'Staffs'와 함께 퇴직(예정) 근로자들이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성공적인 새출발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안내와 더불어 CJ남원공장과 Staffs가 함께 운영하는 '전문 경력전환 준비교육 및 1:1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구체적으로 △재취업 상담, 면접교육, 이력서 작성, 구인정보 제공 등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신청 요건 및 절차,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활용법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또한, 남원시 산단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1:1 맞춤형 구직 매칭 프로그램, 전직 지원 및 퇴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 상담, 긴급복지 지원 및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도 함께 안내됐다.

시 관계자는 "퇴직 예정인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내에서 탄탄한 자립을 이룰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일본 미토요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중학생 21명 4박 5일간 방문
현지 가정 홈스테이 생활 체험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관내 중학생 21명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를 방문해 홈스테이와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순창국제화연구회(회장 김보성)가 주관하는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경험하며 우정을 쌓고 국제적 감각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류는 지난 8월 일본 미토요시 다쿠마중학교 학생들이 순창을 방문한 데 이어, 순창 학생들이 일본을 답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양 지역 간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방문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일본 현지 호스트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상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일정으로는 순창 학생들이 다쿠마중학교를 방문해 환영행사와 정규수업, 학교 급식 등에 참여하며 일본 학생들과 교류했으며, 전통과자 만들기 체험과 지역 역사문화시설 탐방 등을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폭넓게 경험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유태평양·한웅원밴드 판소리 재즈 융합 공연 선봬

남원시는 오는 6일 오후 7시 청아원에서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 '그루브 in 판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소리꾼 유태평양과 국내 정상급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한웅원밴드와 함께 만든 무대이다. 두 팀은 '사철가', '새타령' 등 우리 대표 판소리를 재즈로 재해석해, 판소리 고유의 서사에 역동적인 재즈 연주를 더한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유태평양은 1998년 여섯 살에 판소리 '흥보가'를 3시간 30분간 완창해 주목받은 소리꾼으로, 국립창극단 주연으로 활약하며 다양한 뮤지션들과의 협업으로 참신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재즈로 재해석한 국악과 함께 유태평양이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풍문으로 들었소', 스탠다드 재즈와 팝, OST 등을 새로운 편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1만 원이다. 티켓은 나루컬쳐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남원시민과 누리시민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063-620-628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7대 업종 확대

면 지역 세탁소·생활체육시설 추가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내 사용 가능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15만 원까지 기본소득을 사용 가능한 5대 업종을 7대 업종으로 확대하고, 택시업 또한 월 5만원 사용 한도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 기준에 따라,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을 추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5대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더해 총 7대 업종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업종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택시 요금 결제는 모바일 QR 결제 방식만 가능하며, 순창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공무원 AI 자동화 교육…행정 경쟁력 제고

남원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 중심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2026년 AI 활용 업무자동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급별 업무 특성과 역할을 반영한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남원시 스위트호텔에서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회차별 60명씩 진행된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대량 문서 작성, 개인정보 마스킹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 자동화와 정책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실습을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첫날인 2일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한수완 사무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AI 기본 이해를 시작으로 노트북LM을 활용한 정책자료 분석, 딥리서치 및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자동 생성 등을 실습했으며,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AI 업무자동화 방안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인 3일에는 7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랑잠 인공지능(AI) 교육연구원 강성희 대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남원시 AI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복업무 자동화 실습을 진행하며, 교육생 기획 AI 업무자동화 프로젝트 시연이 이어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복흥작은도서관 전성태 소설가 초청 강연 개최

순창 복흥작은도서관은 오는 12일 오후 7시 전성태 소설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문학이 내게 안부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 도서인 '여기는 괜찮아요'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학의 관계, 작가의 문학세계와 작품에 담긴 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여기는 괜찮아요'는 2025년 전라남도 올해의 책 문학 부문에 선정된 도서다. 이번 강연은 작품에 담긴 의미를 작가와 직접 나누며 문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책을 통해 타인의 삶과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태 작가는 일상의 풍경과 시대의 변화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 온 소설가다. 1994년 '실천문학'신인상을 통해 등단했으며, 소설집'두 번의 자화상','늑대', '국경을 넘는 일', 장편소설'여자 이발사'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신동엽문학상, 채만식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흥작은도서관 박진희 관장은 "지역주민들이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LED 보광기술로 시설딸기 생산성 높여

보광기술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광합성 촉진해 생육·수확량 개선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최근 일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한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 추진 시·군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겨울철 시설딸기는 일조 시간이 짧고 흐린 날이 잦아 빛이 부족해지면 광합성이 떨어져 생육 부진과 수확 지연 등 생산 차질을 빚기 쉽다.

이번에 도입한 발광 다이오드(LED) 보광기술은 자연광만으로 부족한 햇빛을 인공조명으로 채워 딸기의 광합성을 돕는 방식이다.

미세먼지와 잦은 비 등으로 빛이 모자란 환경에서도 생육 저하를 막고 열매 발달을 촉진해 수확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온실 안의 빛의 양을 감지해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을 갖춰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였다. 보광 시설 운영의 효율을 끌어올려 작물 재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보광시설의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각 시군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생육 개선 효과와 운영상 보완 사항 등을 토론했다. 향후 생육과 수확량, 경제성 등을 조사해 기술 적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민원 처리 우수자 시상… 적극행정 견인

완주군이 민원 처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적극 행정과 공정한 행정서비스로 군민 만족도를 높인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3일 완주군은 2026년 상반기 동안 국민신문고와 집단민원 처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담당자를 선발해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일반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부문에서는 총 6,185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처리 기간 준수율 99.8%를 기록한 도로교통과(총점 90점)가 최우수 부서로 뽑혀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자원순환과(89점)와 경로장애인과(88점)는 우수상에 올라 각각 포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집단민원 처리 우수 부서 부문에서는 현장 확인과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펼친 환경위생과(총점 80점)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돼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 부문인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평가에서는 건설도시과 박지원 주무관이 군민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건축과 장원 주무관, 문화역사과 이현승 주무관, 하천기반과 이지영 주무관이 우수상(포상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고산농협, 도시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 진행

완주군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2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연합 부녀회 회원 55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농업인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촌 현장에서 직접 당근 캐기와 상추 따기 체험을 진행하며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고산농협은 이번 체험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보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철 조합장은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을 찾아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고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다양한 소비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유등면 건곡마을 제5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2일 현판 제막식·교육·캠페인 진행
고위험군 20가구 방한 이불 전달

순창군은 지난 2일 유등면 건곡마을회관에서 건곡마을의 '제5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기존에 살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환경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제5호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이 실시됐다.

또한, 순창군 치매안심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순창지구협의회와 연계해 '치매안심이웃플러스' 사업을 펼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양 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겨울철 대비 방한 이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향후 치매안심마을을 거점으로 치매 예방교육, 인식개선 활동, 치매 조기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예산 소진에 조기 마감

남원시는 시민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서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오는 20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이 남원 지역 서점에서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고, 독서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도서와 영수증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구입 비용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어울림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사업을 운영했으며, 1인당 월 2권 이내,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했다.

사업 추진 결과 현재까지 1,202명이 참여해 2,100권의 도서를 지원받았다.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직접 도서를 선택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서점 이용과 독서 문화 확산을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시민이 구입한 도서를 읽은 뒤 도서관에 제출하면 해당 도서를 도서관 장서로 활용하거나 작은 도서관 등에 재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누리소통망 공유 참여 행사' 등 시민 참여형 독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이 독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는 당초 12월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20일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도서관별 예산 소진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장애인 가정에 전하는 따뜻한 재활의 손길

임실군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매월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은 신덕면, 운암면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집중관리군 8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서비스는 혈압·혈당 기초 건강검사와 일상생활 동작 훈련, 낙상 예방 교육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수준에 맞춘 재활 운동이다. 또한 한의사가 함께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한방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운동과 한방진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대상자별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성과 공유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1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전문 컨설팅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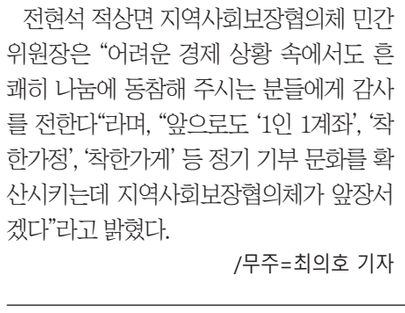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부터 청년농업인 1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재배작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농가당 총 7회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결과공유회는 그동안의 컨설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농가별 경영 개선사항과 영농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및 개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가별 컨설팅 내용과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재배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나누며, 다른 농가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천면에서 초당옥수수 농장과 가족 단위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오선희 농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농업과 체험활동을 연계한 농장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6차산업 인증 절차와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장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적상면 '무주해장국' 착한가게 동참

무주군은 3일 '무주해장국(대표 박인숙)'이 '무주군 착한가게 106호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업소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

106호점으로 등록된 '무주해장국'은 '무주군 착한가격업소(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인하 또는 동결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업소)' 36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박인숙 무주해장국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한 끼와 온정을 나누고 싶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다시 사회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석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1인 1계좌', '착한가정', '착한가게' 등 정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지역경제 살리는 직거래 장터 '호응'

임실 농특산물, 관광객 만나 판로 확대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

임실군이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옥정호 출렁다리 일원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역농가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판매 품목의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실군 관내거주 및 관내 생산·가공 물품'을 입점 기준으로 정하고, 사전신청을 통해 △님마을민들레 △국사봉 기바우농장 △미르 △최강동안농장 △삼계 오지한과 △이삭 영농조합법인 등 우수 농특산품 생산 업체 6곳을 선정했다.

시범운영 기간인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거래 장터 운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직거래장터는 오는 2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된다. 동절기에 접어드는 11월부터는 동절기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우리동네 빠망장터'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촉진

진안군이 면별 소비 여건의 차이를 좁히고 주민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 빠망장터'를 상전면에서 개최했다.

군은 3일 상전면 365화합센터 앞 광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평생학습프로그램 발표회와 연계해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빠망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장터는 진안군 내에서도 인구와 가맹점 수가 적은 상전면민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와 기본소득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어 의미를 더했다. 진안군 내 다른 면의 가맹점들이 직접 상전면을 찾아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장터에는 면 단위 가맹점 8여 개소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2만 원 이상 결제한 주민에게는 현장(공감마실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쿠폰 3천 원권을 증정해 장터 이용을 독려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면별 주민자치 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해 빠망장터를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독감 예방접종 실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

무주군이 무주군보건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2026~2027 독감 예방접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생후 6개월~14세까지로 확대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3가 백신을 사용한다. 3가 백신은 기존 4가 백신에서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이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생기고, 효과는 6개월 정도 유지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무주군 지역 내 총 9곳)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5세부터 64세 이하 지역 주민은 무주군 지역 내 보건기관(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할 시 본인부담금 1만 원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했다면 면역력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김미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올해 독감 유행 주의보가 9월 11일 발령됐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2024년보다 석 달 이상 빨라진 것"이라며 "접종 후 2주 정도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생기는 만큼 서둘러 접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접종 대상자가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위탁의료기관과 대상 등은 꼭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육십령에 고향 사랑 담은 벚꽃길 탄생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왕벚나무 277주 식재 지역 경관자원 확충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장계면 오동삼거리 일원에서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재경향우회 관계자, 장계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나누고 벚꽃길 조성을 축하했다.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은 장계면과 재경향우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사업으로, 향우들의 기부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업 구간은 오동삼거리 입구부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까지로, 왕벚나무 277주를 식재해 지역의 새로운 경관자원을 확충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장수군은 지난달 31일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군>

기념식은 사업 경과보고와 고액기부자 및 관계자 감사패 전달에 이어 합동기념식수, 이름표 달기, 기념표지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며 고향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장계면은 지정기부 참여자들의 성명을 새긴 기념표지판을 식재 구간 시작점에 설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장계면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섬진강 변 전망대 새 단장

덕치면 천담리 전망대 보수 추진 목재 데크 교체·안전 난간 정비

임실군이 섬진강 변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덕치면 천담리 일원의 노후 전망대 보수 작업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나 치수공사 대신, 기존에 설치된 전망대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본연의 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보수 대상인 덕치면 천담리 전망대는 섬진강의 수려한 경관과 물안개를 감상할 수 있어 트레킹족과 자전거 이용객들이 자주 머무르는 곳이지만, 오랜 시간 야외 노출로 인해 시설 일부가 낡고 부식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목재 데크를 전면 교체하고, 흔들리는 안전 난간을 견고하게 재고정하는 공사를 추진합니다. 또한 외부 도색 작업을 함께 실시해 하천 주변 미관을 정돈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신속하게 보수를 마무리하여, 방문객들이 불안감 없이 섬진강의 자연 비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대대적인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적기에 관리함으로써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고원몰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전 품목 20% 할인

진안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과 진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전 품목 2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농가에서 정성껏 재배·가공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진안고원몰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구매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90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귀촌인 윤선민 씨, 귀농귀촌 정착사례 '대상'

전북 귀농귀촌 정착사례 발표회 자녀 양육 위해 시작된 정착길

임실군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정착사례 발표'에서 오수면에 정착한 윤선민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 윤선민 씨는 연고가 없는 임실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기까지의 여정과 농업·가공 분야에서의 창업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상생 사례를 진솔하게 전달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씨의 귀농 여정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 2023년 임실군 지사면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귀농 직후 지역 식품기업에 입사해 3년간 근무하며 장류 제조 기술을 꾸준히 익힌 그는, 이후 오수면에 녹차밭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갔다.

현재 윤 씨는 농업회사법인 바른케어푸드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농업·가공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감상선 환자를 위한 '저요오드 된장'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신장투석 환자용 야채수 연구 논문을 KCI에 등재시키는 등 눈부신 학술 및 사업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역 축제를 통한 적극적인 제품 판매와 식품제조시설 구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윤 씨는 개인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장애아 가정을 위한 농촌 체험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임실군 귀농귀촌 멘토로 위촉되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주시 공무원 장수향우회, 고향사랑기부

장수군에 300만원 기탁

전주시 공무원 장수향우회(회장 강세권)가 3일 고향 발전과 군민 행복을 응원하며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타지에서 생활하면서도 고향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간직해 온 향우회원들이 장수군의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뜻을 모아 이뤄졌다.

전주시 공무원 장수향우회는 전주시청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장수군 출신 공직자들로 구성된 친목 및 애향 단체로 매년 고향사랑 실천과 행정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은 이번 기탁을 통해 장수군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장수군은 이번 기탁에 담긴 향우회원들의 뜻을 소중히 새겨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세권 회장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장수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며 "향우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장수군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국산목재 활용 교육 기자재 기부 동참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기부 취약계층 교육 자재 보급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원장 강경용)와 진안군은 예솔지역아동센터에서 '2026년 녹색자금 숲체험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국산목재로 제작된 학습용 사물함 8개를 전달하는 기증 행사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자금(복권기금)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친환경 국산목재를 활용한 학습용 기자재를 취약계층 아동 이용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산목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지원을 받게 된 예솔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 학습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이다.

센터 아이들은 은은한 피톤치드 향과 따뜻한 질감이 살아 있는 국산 목재 사물함을 이용하며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서영주택관리,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김제시는 지난 2일 ㈜서영주택관리(대표 이창곤)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서영주택관리는 1992년에 설립된 주택임대 및 아파트 관리 전문 강소기업이다.

이번 기부에서 ㈜서영주택관리는 고향사랑기부로 제공되는 답례품(쌀 4kg)을 당사가 관리 중인 김제 관내 3곳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기부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창곤 대표는 "당사가 직접 관리하며 인연을 맺고 있는 김제시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답례품으로 받은 김제 쌀이 단지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서영주택관리 이창곤 대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주시 박시영 주무관, 제50회 청백봉사상 수상

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등 자원순환 행정혁신 공로

전주시 청년활력과 박시영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5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일 서울 중앙일보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청백봉사상은 1977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상으로, 청렴과 봉사 정신으로 주민복리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전국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지방공무원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박 주무관은 청소지원과 재직 당시 폐가전 집하장 이전을 통한 수거체계 개선으로 수거 대기기간을 3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2회 80건 수준이던 수거량을 주 300건 이상으로 확대해 오랜 시민 민원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공공용 재활용 분리수거대 470개를 전수조사해 위치정보를 전주시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가까운 분리수거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전수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배출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시영 주무관은 "저보다 오래 헌신해 오신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그동안 해 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큰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소슬 변호사, 4년째 이어진 고향 사랑…부안군에 성금 기탁

부안군은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전북지부 부안군지회 김성호 지회장의 자녀이자 법조인으로 활동 중인 김소슬 변호사가 2026년 일선지도자 화합 한마당 행사를 맞아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소슬 변호사의 부안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기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오고 있다.

바쁜 법조인 생활 속에서도 고향 부안의 발전과 주민들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온 김소슬 변호사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이통장연합회 부안군지회를 이끄는 아버지 김성호 지회장의 헌신적인 지역 봉사 정신에 이어 딸인 김소슬 변호사까지 부안 사랑을 대를 이어 실천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에 이어진 따뜻한 나눔

한우協 고창군지부·남해화학

고창군은 지난 2일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와 남해화학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총 634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성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는 한우 76kg(334만원 상당)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김문석 지부장은 김문석 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우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해화학은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김태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 청웅면 생활개선회 관내 27개 경로당에 곱창김 전달

임실군 청웅면 생활개선회는 지난달 29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27개 경로당에 곱창김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누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활개선회는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각 경로당에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미자 청웅면 생활개선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르신들께 기쁨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병길 장수읍주민자치위원장, 사과즙 기탁

장수군은 김병길 장수읍주민자치위원장이 지난 2일 장수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들을 위한 사과즙 2,000포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김병길 위원장은 장수읍 축제추진위원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을 비롯해 매년 사과와 사과즙을 꾸준히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장수읍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꾸준한 선행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병길 위원장은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과 마음을 전하고자 사과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 한길순 어르신, 2년 연속 백미 기부

완주군 이서면 삼태마을에 사는 한길순 어르신이 지난 2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한길순 어르신은 지난해 백미 100포를 전한 데 이어 올해도 선행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택균 지역사회보자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의 소중한 나눔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길순 어르신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정성껏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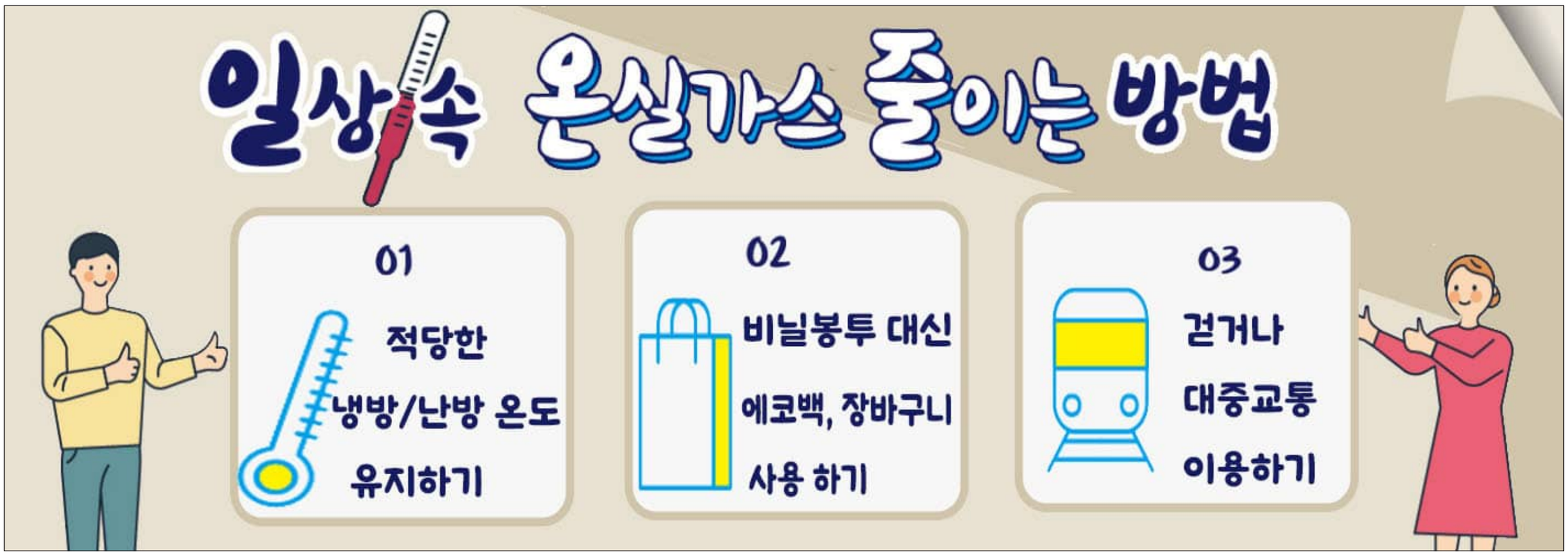
신천지전주교회 부녀회 '함께하는 신앙' 참여와 실천

바쁜 일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 전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후 답변에 응한 부녀회원들은 신앙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중년에 다시 찾은 '또래 간 만남과 소속감',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느끼는 유대감과 보람'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신천지 전주교회 부녀회는 회원 간 교류, 생활 돌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체 회원의 약 90%인 1903명이 40~60대다. 이는 나이대가 비슷한 성도가 많아 가사 노동이나 육아, 워킹맘으로서의 자연스레 공감하게 되는 이유를 꼽았다.

신천지 전주교회는 이에 맞춰 예배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동네 한 바퀴' 모임을 통해 인근 성도들이 카페 등에 모여 생활 정보를 나누고 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도들을 단순한 교인이 아닌 '이웃'으로 여기고 다양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一事一言〉



만추(晩秋)를 반추(反芻)하며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가을 들녘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 즐겁게 놀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메뚜기가 말했다. "얘들아, 오늘 즐거웠어. 우리 내일 다시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조금 더 놀다가 이번에는 개구리가 말했다. "얘들아,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래전 들었던 우화이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조차 모든 생명에게 같은 길이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한 갑자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 시간이라는 말이 새삼 낯설게 느껴진다. 젊은 날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나온 날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으며,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믿었다. 내일은 늘 오늘의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이를 더하면서 삶의 풍경도 달라진다.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생로병사가 어느새 가까운 사람들의 안부 속에 들어와 있다. 오랜 벗의 병환 소식을 듣고, 얼마 전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의 빈자리를 떠올리면서 세월이 지나간다는 말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때로는 어제가 오늘보다 나았고, 오늘이 내일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내일이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같은 자리에 있으리라는 약속은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다음으로 미룬다. 바쁘다는 이유로 안부를 미루고, 마음에 남은 말을 전하지 못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언젠가가 더는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돌아보면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은 이루지 못한 큰일들보다 제때 건네지 못한 작은 인사와 함께 하지 못한 평범한 하루들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 가는 들녘에 서면 한 해 동안 자라난 것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마치고 있다. 누렇게 익은 곡식은 거두어지고, 나뭇잎은 바람에 떨어진다. 한때 무성했던 풀들도 빛을 잃어 간다. 자연의 변화는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해마다 같지 않다.

이 가을에는 유난히 한 벗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지난날과 이제는 조금 지쳐 보이는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을 그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과 가 보고 싶은 곳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저려 온다.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원도 한도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을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쉬움은 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과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었고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었다. 그 우화를 떠올리며 문득 생각한다.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만추의 들녘에서 아픈 벗을 생각한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게도 아직 맞이할 가을날이 더 많이 남아 있기를 바란다.

사 설

지방 주도 성장 33조 원, 전북도·정치권의 역량을 보여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산업 기반 약화에 직면한 전북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곧 전북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성패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 역량에 달렸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에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재원을 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로 인해 전북은 청년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예산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33조 원 가운데 전북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지방 우대 방침만 믿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무엇보다 전북도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새만금과 피지컬 AI,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국가 재정사업과 연결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투자 실현 가능성을 수치와 논리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뒤 뒤늦게 대응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야와 지역구를 떠나 전북의 핵심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물론 미래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 지원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말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산업 투자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전북도는 유치 대상 기관과 전략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도와 정치권이 제각각 움직이거나 성과를 둘러싼 공치사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공동 전략을 세우고 추진 상황과 확보 실적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방 우대 원칙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배분과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몫은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82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지, 또 하나의 놓친 기회로 남을지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실천에 달려 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분명한 성과다.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오늘의 시

감나무 / 이 재 무

감나무 저도 소식이 궁금한 것이다
그러기에 사립 쪽으로는 가지도 더 뻗고
가을이면 그렁그렁 매달아 놓은
붉은 눈물
바람결에 슬쩍 흔들려도 보는 것이다
저를 이곳에 뿌리박게 해놓고
주인은 삼십년을 살다가
도망 기차를 탄 것이
그새 십오년인데……
감나무 저도 안부가 그리운 것이다
그러기에 봄이면 새순도
담장 너머 쪽부터 내밀어 틔워보는 것이다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섣달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등이 있다.

| 기고 |

군민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적극행정, 고창의 내일을 바꾼다



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정책이라도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기존 규정과 법률만 따르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군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동안 고창군은 공직자들이 감사나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보호, 소송 지원 등 다각적인 제도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일해 좋은 성과를 낸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전 방식에 머물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조직 문화를 다져왔다. 이러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올해 고창군의 적극행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 상반기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직자들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소규모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가와 주민들이 겪던 경제적·행정적 부담에 주목했다.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면 제출 절차를 대폭 줄이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조사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설계비용을 연간 1억 원 이상 절감하는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버스나 차가 잘 다니지 않고 가게가 없어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웠던 이동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고창동네점빵'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장보기 불편 해소와 자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러한 적극행정 성과들은 모두 법령과 규정의 딱딱한 문구에만 갇히지 않고, 언제나 '군민의 편의와 이익'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고민했기에 가능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규정과 지침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군민이 마음으로 체감하는 참된 적극행정이 완성된다.

고창군은 소신 있게 발로 뛰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당연한 '일하는 방식'으로 뿌리내려, 군민 한 분 한 분이 "고창군 행정이 참 든든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쉼 없이 이어가겠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전주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준비 완료…막판 역량 집중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도 11월로 예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저마다의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전주시 역시 금융·농생명·피지컬AI·문화관광 등 지역의 기존 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을 연계해 이전 효과를 높이고,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지·정주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주시의 유치 전략과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금융·농생명·피지컬AI·문화관광 연계
혁신도시 중심 맞춤형 유치 전략

▲ 모여야 커진다…혁신도시 집적의 힘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닌 '집적과 집중'이다.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전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전주시는 지역별 유치 경쟁에 앞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자리 잡은 공공기관과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추가 이전의 효과와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모여 있다.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농생명·공간정보 분야의 산업 기반도 형성돼 있어, 관련 기관이 추가로 들어오면 기존 역량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분야별로 축적된 역량이 결합하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 및 사업과 단일 기관 수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신산업의 발굴·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산업 수요 창출뿐 아니라 관련 기업·연구기관의 참여, 인재 양성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넓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이러한 집적 효과를 기관별 유치 근거로 구체화하기 위해 전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신규 이전기관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정연구원의 입지 여건 및 기관별 유치 타당성 연구 결과를 종합해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 산업과 기관을 잇다…지역산업 시너지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에 축적된 기관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분야별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자산운용과 농생명처럼 기존 기반이 형성된 분야에는 연관 기능을 더하고, 피지컬AI와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분야에는 연구·사업화·산업지원 기능을 연결해 지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금융·자산운용 분야에서는 한층 확장된 금융 인프라가 유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신한·KB·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이 최근 전주에 잇달아 거점을 마련하면서 자산운용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까지 이뤄지면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의 집적화는 물론, 법률·회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을 토대로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이어줄 기능에 주목한다. 정책·사업화·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을 유치해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기업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간정보·디지털트윈 역량과 피지컬AI-J밸리를 연계해 AI 관련 국가 연구기관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실증·산업지원 기능을 연결해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문화와 관광·콘텐츠 분야에서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지역 문화자산의 산업적 활용을 넓히는 데 힘을 싣는다. 기존 문화·관광산업 기반에 콘텐츠 개발·사업화·관광산업 지원 기능을 더해 전주가 지닌 문화적 강점이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연계 방안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 공간부터 정착까지…이전 지원 강화

전주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강점은 이미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업무·생활 기반과 다양한 입지 자원이다. 새 청사 건립이 가능한 가용부지에 기존 건축물과 유휴공간까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공실이 있는 건물은 68곳이며, 공실 면적은 2만6,000㎡에 달한다. 도는 이를 활용하면 별도 청사 신축 없이도 5,0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직후 또는 간단한 내부 정비만 거치면 입주할 수 있어 기관별 이전 일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 내 가용부지를 기본 축으로 혁신도시·만성지구의 기존 건축물과 원도심 유휴공간을 함께 살피고 있다.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는 부지를, 신속한 이전이나 임시청사가 필요한 기관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관별 수요에 맞는 공간을 신속하게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 내 이동 편의를 높일 순환교통체계와 외부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을 높일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기관과 안전 인프라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전기관과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 지원책과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갖춰진 공간과 생활 기반에 맞춤형 지원을 더해 이전 결정 이후 빠른 정착을 돕고,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상을 꾸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전주·전북 한뜻으로…유치 공조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높이려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 차원의 배치전략과 전주시의 산업·입지 경쟁력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유치 대상 57개 기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며, 자산운용·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과 연계한 '기능 중심·집적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전주시 역시 도와 보조를 맞춰 전주의 산업적 강점과 입지 여건을 담은 기관별 유치 논리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이전계획 발표에 맞춰 지역 정치권·유관기관과 공조 범위를 넓히고, 준비한 내용이 정부의 배치계획과 기관별 이전 결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중심의 공동 유치전이 실제 이전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의 산업 기반과 혁신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기관별 이전 수요에 대응하며, 직원과 가족의 정착까지 뒷받침하는 유치 전략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전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준비한 유치전략을 성과로 연결해, 전주와 전북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